

SK, 예멘 마리브광구 운영 중단

SK는 Hunt Oil 및 ExxonMobil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예멘 마리브광구 운영이 중단됐다고 11월22일 발표했다.

SK는 예멘 정부가 광구 생성물 분배계약기간이 종료된 11월14일부로 현지 국영회사인 SEPOC로 광구 운영권을 넘겨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마리브광구 지분 15.9%를 보유하고 있는 SK는 Hunt Oil 및 ExxonMobil과의 합작기업인 YEPC를 설립해 광구 운영에 참여해왔으며, 2004년 1월 광구운영을 5년간 연장하는 계약을 현지 정부와 이미 체결한 바 있다.

SK는 마리브광구 운영 중단으로 원유 보유매장량이 기존량의 1%에 해당하는 400만배럴이 줄게 됐다.

SK는 YEPC가 파리 국제상업회의소에 국제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에 향후 중개결과에 따라 광구 운영에 다시 참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SK는 “예멘 정부가 YEPC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운영권자인 YEPC의 투자자인 Hunt Oil과 ExxonMobil에서 예멘 정부와 광구 운영 참여를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11/24>